

종합·해설

‘호남 기득권’ 내놓고 단일화 승부수

■ 문재인 후보 ‘광주선언’ 배경

‘호남 내 여당’ 기득권 세력 전락 근본 처방 없인 텃밭민심 못잡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8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이라는 제목의 ‘광주선언’을 통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 표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를 넘지 못한다면 단일화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다.

우선 이날 문 후보의 광주 선언은 지난주 발표한 정치혁신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철폐’가 더해졌다.

이날 ‘호남 내 여당’ 노릇을 해오며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안 후보로 기울어져 가는 텃밭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는 “지역정치 공천을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다보니 ‘리모컨 자치’란 말까지 나온다”며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 문턱을 낮춰 차세대 정치 주역을 양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치의 뿌리, 자부심의 이름이 되도록 답을 바꾸겠다”며 “저는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다. 호남에서 민주당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이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포기를 토대로 한 공천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또한, ‘광주 선언’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후보가 밝힌 정치 및 정당의 기능 축소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당 기반의 개혁을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28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심장부였던 금남로 분수대 앞에서 ‘광주선언’을 발표한 뒤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잡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있는 적통 계승자”, “호남이 부여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통을 자임하면서 바다 정서도 파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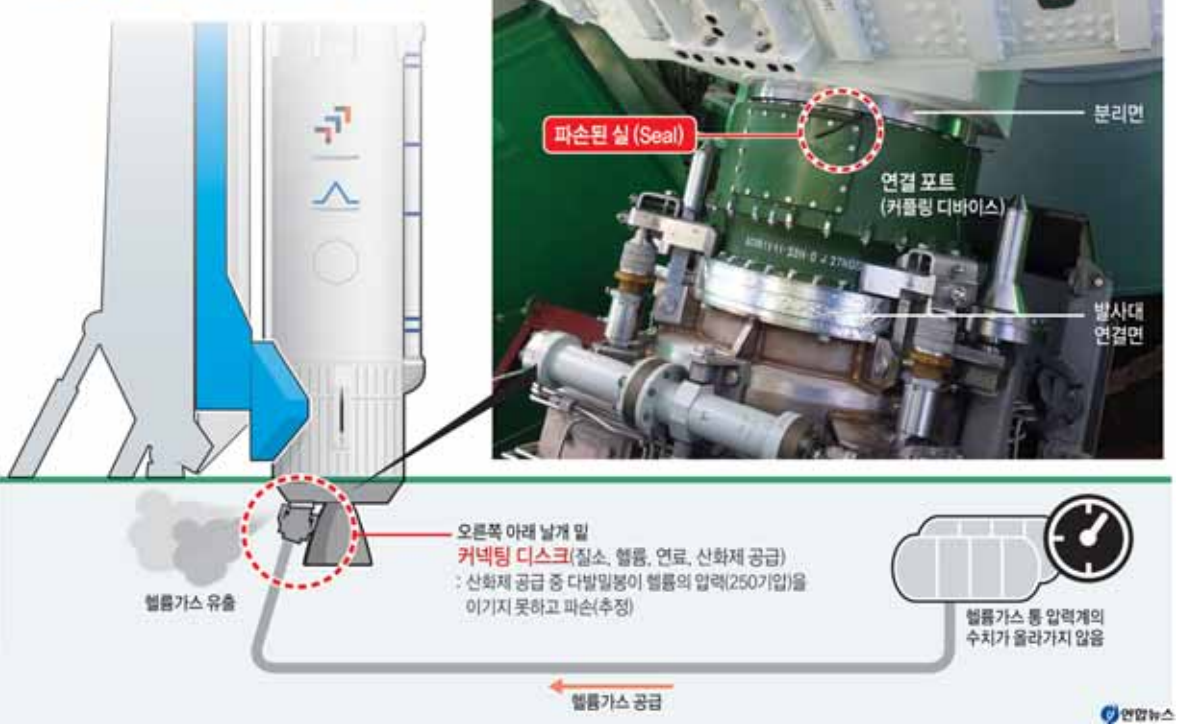
특히, 그는 자신을 ‘호남에 빛나는 자’로 표현하며 “호남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당이 존재한다”면서 “정권·정치·시대교체 등 호남이 명령하는 길을 가겠다”고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호남이 더 이상 차별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균형 인사를 강조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사 출대론을 불식시켜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 호남고속철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 등을 약속했지만 지역 민심이 기대했던 큰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로호 3차 발사 왜 연기 됐다



이 고무링이 나로호 발목 잡았다

3차 발사 연기... 러시아 측 구체적 원인 안 밝혀

나로호 3차 발사 연기는 이른 새벽 손가락보다 작은 동그란 고무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45분경 1단(하단)부에 헬륨을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헬륨 압력이 적정 수준까지 높아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오전 10시 1분경 연료·헬륨 주입을 위한 로켓 하단과 발사대 연결 부위의 링 모양 고무 실(seal)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로켓 하단-발사대 연결 부위에는 기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실이 사용되는데, 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헬륨이나 연료를 제대로 채워넣을 수가 없다. 헬륨 가스는 나로호의 밸브 등을 작동하는데 사용된다.

충남대 항공우주공학 허한일 교수는 “헬륨 가스는 추진제(연료·산화제)를 제어하기 위한 밸브를 여닫을 때 필요하다”면서 “또 추진제가 연소할 때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헬륨 가스가 옆에서 연소 가스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나로호 3차 발사의 발목을 잡은 고무링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1단 로켓의 책임이 있는 러시아 측의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배관 등의 문제로 누설이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었다.

교과부 노경원 전략기술개발관은 “지난 2009년 1차 발사 때는 발사체 내부 헬륨 가스 탱크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3차 발사에는 아예 처음부터 헬륨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충전해도 압력계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새는 곳이 있다는 것”이라며 “가스통 주입구를 밀착시켜 주는 실 부분에서 누설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측이 누설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어 더욱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 연방우주청(로스코스모스) 공보실장 알렉세이 쿠즈네초프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직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러시아 전문가들이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년 이상의 로켓 발사 역사에서 발사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이를 해결한 뒤 다시 성공적으로 발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나로호 1단 로켓 제작사인 ‘호루프 니체프’ 측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알렉산드르 보브레노프 센터 공보실장은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 실험동으로 옮긴 뒤 추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쪽에서 왜 헬륨 가스 유출 애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언제 로켓 발사가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우선 문제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교사를 포함한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한 뒤 불과 73초 만에 공중 분해된 쉘린저호의 폭발 원인으로 역시 고무링(O-ring) 때문이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쉘린저호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 고체연료 추진기(부스터)의 고무링이 연료 점화와 함께 타 버렸고, 여기에서 새어나온 고온 가스가 중앙 외부연료통과 부스터의 연결 부위를 파손시켰다. /오광익기자 kroh@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다

**박지사 文 우호 선회?**

“당원으로서 힘 보태야”

민중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박준영 전박지사는 27일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들과 오전 자리에서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박지사가 우호적이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박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분당, 당원 및 호남 출대론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초 강장에서 열린 전남도당 당원 한마음 단합대회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당원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쉽겠느냐”며 당의 해신을 압박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정가에서는 박 지사가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대결” 등 대선국면에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해왔다.

박 지사는 경선 이후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 후보 지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사는 이날 “현재 호남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 후보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www.LOTTEJTB.com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광주롯데백화점 062) 223-5588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62) 228-6644

**무안출발 북경** \*홍소핑 히트 상품 초특가! [정통] 북경/만리장성+부국해저 4일/5일 \*북경 서커스, 인력거 투어, 발마사지 체험 349,000 원부터 ▶ 11/16~ 매주 화,금요일 출발

**광주출발 일본 온천여행** \*부관철헤리/쾌속선/항공이용! [알뜰] 큐슈 온천여행 3일/4일 \*큐슈 온천 호텔 숙박 299,000 원부터 ▶ 11/4,8,11 12/1,5~

**무안출발 방콕전세기** \*무안출발/겨울전세기 상품! [태국] 방콕/파타야 3박 5일 \*알카자소 관광 / 각종 기념품 제공! 849,000 원부터 ▶ 12/27일~13년 2/25일

**유럽** A380 파리 취항 기념! 베네룩스+독일+파리 7일 1,590,000 원부터 ▶ 매주 금요일 출발

**롯데쇼핑 발원상품** 전일형 특가 완전일주 8일/9일 1,390,000 원부터 ▶ 11/9,10,11,12,13,14,15,16,17~

**동남아** \*홍소핑 인기상품 상급 방콕 초특급 방콕 파타야 5일 499,000 원부터 ▶ 11/5,6,7,8,10,11,12,13,14,15,16,17~

**스마트 가을 기획전** 대박특가 환상의 섬 보라카이 5일/6일 399,000 원부터 ▶ 11/1,4,5,11,12,14,15,16,19,21,22,25~

**미주 / 대양주** \*California Dream! 미사부 완전일주 7/8/9일 1,490,000 원부터 ▶ 11/2,9,12,13,14,15,16,19,21,22,25~

**트레킹** 전문산악인 여행 제주 한라산&올레 트레킹 2일 229,000 원부터 ▶ 11/25일 단회 (전문산악인 동행/강연회)

**자유여행** 자유여행 마카오 2박4일 469,000 원부터 ▶ 11/19,23,30 12/10~

**한 도시의 여유파리** 6일 899,000 원부터 ▶ 편편, 로마 등 타 도시 선택 가능

**크루즈** 아태리/그리스/터키 3주 3개국 크루즈 13일 4,990,000 원부터 ▶ 11/15 단회

**초특가 동남아 레전트호 크루즈** 4/5일 1,190,000 원부터 ▶ 11/19,23,30 12/10~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전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